

동화사에 성보박물관 세운다

통일대불전 지하에 현대식 수장고 갖춘 전시장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성보박물관이 생긴다. 동화사는 최근 8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 통일대불전 지하1.2층 700여 평의 공간에 현대식 수장고 등을 갖춘 최신시설의 성보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4월 공사가 시작돼 연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에 돌입한 동화사 성보박물관에는 사명대사 유물인 영남도총섭인장, 영남치영아문현판을 비롯 동화사 본말사의 수백여 점의 불교관련 유물이 전시된다.

특히 동화사는 성보박물관에 향온향습 시설이 갖추어진 전시공간, 수장고 등의 '하드웨어'와 문화재 관련학과를 전공한 전문인력, 효율적인 운영프로그램 등을 갖춘 최첨단시설의 성보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공사 시작... 연말 개원
교육장도 갖춰 시민공간으로

의 '소프트웨어'를 충실히 확보해 그간 사찰 성보박물관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어온 전문성 부족을 보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 하도록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부대시설로 각종 세미나, 강의를 위한 교육공간도 갖춰 지역 불자 및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은 "성보박물관을 불교 문화재의 도난을 방지하거나 전시를 위한 불교문화재 보존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강좌, 세미나 등을 통한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교포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영산회상도 전시회 열어 한국불화연, 22일까지

한국불화연구회(회장 장환진)는 17일부터 대구시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영산회상도' 전시회를 연다.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불화작가이자 한국불화포교원장인 영법스님(대구 세심사주지)의 지도 아래 지난 4년간 불화를 전시받은 한국불화연구회 25명 회원들의 60여 작품이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영산회상도'를 회원들이 여러 분야로 세분화 해서 나누어 그린 뒤 전시장에 장식하는 퍼포먼스가 연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원구 기자

"신생팀이 13년 경력팀 이겼다"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 장애인 축구대회

"아! 이번이다. 성우원이 천마재 활원을 이겼다!"

9일 폐법초등학교 운동장은 성우원 축구팀의 함성으로 넘쳐났다. 정신체 장애시설에 축구팀을 만들어 지도해온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회장 전진호)가 마련한 축구대회에서 지난해 7월 창단된 성우원 팀이 13년 경력의 천마재활원 팀을 누르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축구대회는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회장 전진호)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과 함께 두 시설의 축구팀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여서 더욱 뜻 깊었다.

이날 청년회원과 조기축구회 등 참가자들은 쌀, 라면, 축구화, 운동복 등을 성우원과 천마재활원에 전달했

으며 천마재활원 황선무 이사장은 13년 동안 한결같은 봉사활동을 펼친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는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축구를 지도하며 축구경기를 통한 장애 극복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천마재활원 축구팀은 세계 정신지체장애인 축구대회에 우리 나라 대표로 출전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 팀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매월 정기 법회로 신심을 다지는 한편, 생일파티 열어주기, 크리스마스 선물

주기, 명절 때 용돈주기 등 정신지체장애인의 가족이 되어주는 훈훈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전진호 회장은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아이들에게 큰 행복이 된다는 걸 좋아서 힘든 줄 모른다"며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재정적, 물적 한계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천미희 기자



◇보현회가 창립한 성우원, 천마재활원 축구부.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 마산 결핵요양원 방문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회장 장일선)는 9일 마산 결핵요양원을 방문, 자매결연을 맺은 환자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장일선 회장을 비롯한 회원 5명은 가족이 없는 환자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결핵요양원을 방문, 현금 후원, 물품 후원과 함께 대중공양 법회를 열어 환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있다. 장일선 회장은 "찾아와 줄 가족이 없다는 외로움을 씻어내고 환히 웃는 환자들을 보며 더 자주 오고 싶다"며 준비해간 양말, 속옷, 영양제 등을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출범

박추자 회장 "자비사상·적십자 정신 접목 봉사할 터"

대한적십자사 산하의 불교봉사회(회장 박추자)가 11일 적십자회관 8층에서 창립 결성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창립 결성식을 가진 불교봉사회는 불교조직이 따로 없던 98년 원불교 단위로 회원으로 가입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데 있다.

불교봉사회 창립 결성식은 국제적십자 기본원칙 낭독, 봉사원 서약, 반야심경 봉독, 회기 수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불국토 이사장 정관스님,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혜종스님을 비롯 대한적십자사 김일휘 회장이 참석했다.

박추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은혜를 이웃으로 전하는데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봉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십자 정신과 불교의 자비사상을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가 11일 창립됐다.

접목시켜 사회의 어두운 곳에 도움을 주는 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는 45명의 봉사자와 20명의 후원자로 구성됐으며, 영광재활원 장애인 봉사를 시작으로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무

료급식보조, 금정구복지관 재가노인 반찬 서비스, 성애원 목욕서비스, 매일 저소득자 쌀 후원 등을 비롯 복한동포돕기, 보리수 쉼터 돕기 등의 봉사를 펼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하며 궁극적으로 공성(空性)에 대한 자각을 통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수행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3개월 동안의 특강을 통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을 직시한 후,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을 하고 중생에 대한 끊임없는 자비심으로 이타행을 행해 보리심을 닦는 순서적인 수행 가이드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051)514-7936 천미희 기자

부산서 나라사랑 캠페인 벌여

나눔의 집·인권센터, 4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담은 그림(사진), 영화가 부산을 찾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전문요양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차집도 열린다.

나눔의 집과 평화인권센터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제4회 나라 사랑 캠페인 행사를 부산에서 마련한다. 부산대 총여학생회는 본관 대회의실 3층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영화상영 및 강연회, 세미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의 자리를 마련하고 고통의 해결을 시대적 역사적 과제

로 부각시키겠다.

2일에는 부산불교회관 2층 보송에서 하루차집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린 피해자 그림과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안부 문제 사죄 촉구 및 일본 역사왜곡 반대를 위한 지역민 서명도 펼친다. (031)768-0064 천미희 기자

구미 수다사 대웅전 동종 경북도 문화재자료 지정

경북도는 3일 구미 수다사 대웅전에 있는 동종을 도지정 문화재자료(제435호)로 지정 고시했다. '건륭 27년' 명문이 새겨진 수다사 동종은 조선중기에 만들어진 범종종 형태, 크기, 문양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원구 기자

'깨달음으로 가는 순서' 목요 특강법회

지장선원, 석달간

부산 구서동 지장선원(주지 신일)은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라는 주제로 목요특강법회를 연다.

4월 3일부터 3개월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특강은 '보리도차제론'을 초월 스님이 우리

사명대사유품 300여점 소장 표충사 유물관

문광부 지정 '호국박물관' 등록

사명대사 유물이 전시돼 있는 밀양 표충사유물관이 문화관광부 지정 호국박물관으로 등록됐다.

문화관광부는 8일 문화재위원회 박물관분과위원회를 열어 밀양 표충사호국박물관 등 6곳을 문광부가 인정하는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표충사(주지 혜오)는 사명대사의 유품을 전시하기 위해 지난 92년 유물관을 건립, 지난해 유물관을 정비하면서 시설, 형태 등 기준이 마련돼 이번에 박물관으로 등록됐다.

표충사 호국박물관에는 국보 제

75호로 지정된 청동함은항원 등 300여점의 사명대사 유물이 전시돼 관람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청동함은항원은 1177년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고려 항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름다운 곡선과 섬세한 문양으로 고려 공예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광부 지정 박물관으로 등록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설 관리 등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천미희 기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고민중이라면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홈페이지(www.bulgupto.or.kr)에 접속하면 그 길이 보인다. 불국토가 홈페이지에 접속, <불

할수있다. 효율적인 후원자 관리를 위해 개발된 불국토 후원 시스템은 기관 선택뿐 아니라 정기후원, 일시 후원, 물품 후원 등 자신의 여건에 맞는 물적, 인적, 재정적 보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은가요?"

불국토 홈페이지 클릭하세요

국토 후원>을 클릭 하면, 불국토 후원시스템의 후원 신청하기를 통해 불국토 산하의 복지기관인 용호복지관, 계곡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양정청소년수련관, 캠프 하우스 등의 후원자로 참여

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후원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후원한 후원금 사용내역과 후원금 결산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후원금의 투명성도 확보된다. 천미희 기자

고요이집 전화: (02) 322-0036 팩스: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031) 945-2900

동자승 이야기

어린그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산사의 샘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짜든 세상의 마음을 훌훌 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 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량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출간 즉시 3배

이지엄 · 정성욱 글
울랄라! 값 9,900원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는 편지

펼치는 있는 그대로 담긴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종언이다 - 공영일보
경희, 단재, 성철, 효봉 스님 서신 9,900원

무심 경허 큰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명빈 산, 북을 잡어도 한 치 걸림도 없이 문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깊은 법법이요 시이다. -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저술 | 번역서 정영림 | 값 8,500원

마음꽃 경허 큰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어름꽃, 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 조선일보 (한겨레 리터)
경허 큰스님 저술 | 값 11,000원

포클릿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는 편지